

韓·中·日 불교 음악인 한자리에...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 음악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불향'을 주제로한 3개국 불교음악회를 연다. 사진은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연주 모습.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개국의 불교음악이 한자리에 연주된다.

'오케스트라 아시아' (예술감독 박범훈)는 불족을 맞아 '불향(佛香)'을 주제로 5월 24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중·일 불교음악회'를 봉행한다. 레퍼토리는 한국의 '동점(東漸)', 일본의 비파협주곡인 '기원정사(祇園精舎)', 중국의 대협합창곡 '월음(月音)'과 '만홍(晩紅)', 그리고 교성곡 '붓다'다. 지휘봉은 한국의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과 중국의 리우웨이진, 일본의 아사시가 잡는다.

특히 이번 공연이 눈길을 끄는 것은 3개국에 걸쳐 80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두 자국의 전통악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등장하는 악기도 30여종이 넘는다. 우선 한국단원들은 피리, 대금, 태평소, 가야금, 해금, 사물악기, 대고 대아쟁을 들고 나온다. 중국에서는 현악기인 고후와 얼후, 관악기인 디즈와 쑤나, 피치카토 악기인 쩡과 비파 등이 편성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관악기인 조우후에, 사쿠하지, 타악기인 다이코와 모듬북 등으로 연주한다.

불족 기념음악회의 취지에 맞게 곡들도 대부분 불교를 주제로 했다.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동점'은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북인도의 대표

5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 80여명 단원들 자국 전통악기 사용 3개국 찬불가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 박범훈 교수 지휘, 교성곡 전통무용 선사

적인 불교악기인 '시타르'와 '타부라'로 연주되는 이 곡은 박 교수 자신이 인도와 중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분위기를 합주 곡으로 만든 것이다.

이어 비파와 협연하는 '기원정사'는 13세기 일본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평가(平家) 가문의 영화와 몰락을 통해 불교의 무상관을 나타내는 곡으로 일본 불교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노래를 선보인다. 심오한 생명철학과 불교의 인연을 관현악 합창곡으로

편곡한 '월음'과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한 '만홍'을 가수 공덕성(孔德成)씨와 한국의 불교 연합합창단이 공동으로 음성공양 한다.

한중일 3국의 공연이 끝난 뒤 시작되는 2부는 사실상 박범훈 교수의 무대다. 박 교수의 대표작인 교성곡 '붓다'가 김성녀(중앙대 국악대학 교수), 소리꾼 장사익씨의 독창과 관음사 김상사 봉은사 불광사 BM합창단 사자암 조계사 소속 합창단으로 구성된 240여 연합합창단의 합창으로 연주된다.

1991년 종교음악제에서 초연됐던 '붓다'는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생애를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국악교성곡이다. 1부와 2부의 중간에는 채향순 교수(중앙대 타악연회)가 이끄는 중앙가무단이 출현해 신명나는 전통 무용을 선사한다. (02)3141-4706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인터뷰 박범훈 교수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창단된지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음악회는 처음으로 아시아 종교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불교를 주제로 기획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3국의 불교음악을 한자리에 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오케스트라 아시아'의 예술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박범훈 교수(중앙대 부총장)는 이번 공연의 취지를 이렇게 소개한다.

'오케스트라 아시아' 10주년 기념 경전에 등장하는 악기로 음성공양 에피소드, 뒷 이야기 모아 책 낼 예정

"이번 공연의 의미는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음을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소리와 음낮이는 다르지만 한데 어우러지면 부처님의 지비정신을 표현하는 좋은 음성공양이 될 것입니다."

박 교수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 인도 등 동양음악의 연대성과 전통성을 확인하며 동양음악을 통한 세계화를 열어나가기 위해 매년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순회 연주하고 있다.

한편 박 교수는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창단동기와 순회공연에서 생긴 3개국 단원들의 에피소드와 공연 뒷 얘기를 묶은 책 <오케스트라 아시아 10년>도 곧 발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오신 달 특별행사★

봉신특사 + 부석사 + 청량사

삼사찰 순례여행

신특사
여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풍미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서 신라시대(현유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절은 갈기곡 앞만 위에 벽돌로 쌓은 대웅전만이 있으며, 고려 때부터 벽돌이래고도 불연다.

부석사
신라 문무왕 18년(776년) 예종 원영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열불'에 '당' 교종의 신라 침략 '순실'을 '당'을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당' 원영교양을 '당'에 '위'해 '당'국어로 '당' '당'을 창건, 우리나라 원영사찰의 발원지가 되었다.

청량사
신라 문무왕 8년(663년)에 현유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붕유형은 원형 47호인 청량사 유리모전이라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중수지리원상 김지중의 김지중 공예는데 육륙종 12종우리에 연로일지현 청량사를 불리하고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순사지이다.

■ 날짜 : 2004년 5월 19일 ~ 5월 30일까지 [매일출발]
■ 코스 : 서울 - 여주신특사 - 영주부석사 - 봉화청량사 - 서울
■ 회비 : 37,000원 [왕복교통비, 조식, 중식, 석식, 입장료, 봉사료] 일제 포함!
※ 석가탄신일은 가은 봉암사로...

출발시간
07:00 영등포 경방빌 백화점 앞
07:30 서울역 9번출구 대우빌딩 앞
08:00 잠실역 3번출구 너구리상 앞

www.dongbaektour.co.kr
인터넷주소창에 '동백여행사' 라고 치세요.
친목단체합영 / 주야 휴일 필수참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
계좌번호: 농업 046-02-119148 [동백여행사]

공 고

본중은 불기 2548(2004)년 4월 21일부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2548년(2004)년 5월

재단
법인 **대한불교 원효종**
이사장 **송기욱 (무진)**

(110-160)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
TEL (02)735-0501 / FAX (02)736-3509

※ 기발부된 제증명(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신분증)은 2004. 5. 20 ~ 6. 20까지 일제 갱신, 재등록함